석탑·불상들은 왜 박물관 전시품이 됐나

성보유랑 聖寶流浪

② 조선물산공진회와 불교문화유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시정 5년간 조선 산업의 진보를 전시하고 신구 시정(新舊施政)의 성적 여하를 비교 대조하여 생산품의 우열을 심사 고핵(審査考覈)하여 당업자(當業者)로 하여금 더욱 그 사업에 정려(精勵)하고 근검 역행(勤儉力行)으로써 시설의 개량을 도모하고 산액(產額)의 증진에 노력해 조선의 부력(富力)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매일신보〉 1915년 7월 13일자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성(현 서울)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대대적인 홍보·전시 행사가 열린다. 이름하여 '시정오년조선물산공진회(이하 공진회).' 공진회라고 하면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박람회라고 이해하면 된다. '시정오년'은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 뒤 5년간의 치세를 의미한다. 정리하면 공진회는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뒤 성과와 치적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일제는 1907년 개최했다가 실패한 경성박람회의 만회와 근대화를 통한 조선인 동화, 조선 지배의 정당화를 꾀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조선총독부는 공진회의 성공을 위해 〈경성일보〉 〈매일신보〉 〈조선휘보〉 〈신문계〉 등과 같은 언론 매체와 잡지를 적극 활용·선전했다. 특히 한반도 전역에서 유물과 물품 수집과 관람객 유치에 전력을 쏟았다. 각 지방 행정 조직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물품 출품을 적극 권장했고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 교통편 등이 제공됐다. 공진회 개최 3개월 전에는 '공진회 관람단체'가 조직돼 9월 2일에는 각 지방에서 관람단이 상경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선총독부의 노력(?)으로 공진회에는 4만444점의 물품이 전시됐고, 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개최 기간 동안 관람객 수는 116만6383명에 달했다.

불상 · 석탑, 공진회 성공 위해 반출

공진회의 성공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을 자신들 입맛대로 허물고 개조했다. 공진회장은 근정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을 제외하고 건물들을 헐어 마련했다. 이곳에는 제1호관, 제2호관, 기계관, 영림창특설관, 심세관, 철도국특설관, 동양척식특설관, 미술관이 들어섰고 편의시설로는 분수대와 음악당, 양어장 등이 조성됐다.



조선총독부박물관 야외공간을 장엄하고 있는 석탑들.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 개성 남계원지 7층석탑, 이천 안흥사지 5층석탑이 확인된다. 뒤편의 하얀 건물이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앞서 공진회미술관으로 건립됐다.

1915년 시정오년조선물산공진회
경복궁 헐고 일제강점 5년 기념
야외에 반출된 석탑 6기 전시해
내부 미술관엔 경주 석불들 들여
공진회 이후 총독부박물관 전환
야외 전시공간 채우려 성보 반출



1915년 시정오년조선물산공진회 홍보 포스터.

공진회미술관에는 1902·1909·1912년 세키노 다다시와 야쓰이 세이이치 등의 주도로 이뤄진 한반도 고적 조사 등에서 확인됐던 유물을 반출해 전시회를 구성했다.

'한국박물관 역사 회고와 한국박물관 발전을 위한 전망'(최석영)에 따르면 미술관 본관 1층 중앙에는 경주 남산 삼릉곡에 있던 약사여래좌상을 가져와 안치했고 좌우 협시로 감산사 석불입상 2구가 배치됐다. 중앙홀 양측 벽에는 석굴암 부조상 14체의 등신대 석고모형이 설치됐으며 천장에는 천인상을 그렸다. 미술관 본관 앞에는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을 중심으로 석불과 철불들을 배치했다.

"산뜻한 이(공진회) 정원에는 신라와 고려시대의 사리탑과 석불, 철불들이 배치했다. 음악당을 사이에 두고 그 남북에 있는 것은 이천의 삼계공양탑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오층탑을 원주의 보제존자탑, 칠층탑을 개성의 봉경탑, 북쪽에 있는 것을 원주의 현묘탑이라 하는데 조각이 가장 정교하고 뛰어나며 이를 중심으로 대일여래의 석상 2존, 문수 및 미륵의 철제좌상 2존을 사방에 배치했던 바 어느 것이나 모드 고색창연하여 천고의 조각에 해당하는 물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조선휘보〉 1915년 10월호의 '공진회 기사'의 내용 중 일부로 공진회 야외전시공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이 같은 문서와 사진자료 등을 종합하면 공진회 개최 기간 동안 야외공간에는 총 6점의 석조문화유산이 전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최선일,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야외 전시 석조문화재 연구') 순서는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나옹 화상)사리탑(1기)-개성 남계원지 7층석탑-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1기)-이천 안흥사지 5층석탑-이천향교 5층석탑-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순이었으며 미술관 옆에는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부도와 탑비**가 전시됐다.

공진회는 끝났어도 박물관은 남았다

3개월여의 공진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시가 마무리됐으니 출품됐던 성보문화유산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결론은 돌아가지 못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은 화려한 조형으로 일본인 개인병원 및 저택의 장식재로 사용되다가 공진회에도 출품돼 야외공간을 장엄했다.

아예 공진회만을 위해 반출됐던 이천향교 옆 5층석탑은 거대 재벌인 오쿠라 기하치로에게 양도돼 현재까지도 오쿠라호텔 슈코칸(集古館) 야외 장식재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공진회에 출품됐던 성보문화유산들은 박물관 소장품으로 전락했다. 공진회의 폐막을 앞둔 1915년 10월 18일 제29회 공진회사무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다.

"(공진회)미술관은 11월 1일부터 박물관이라 하고 총독부 총무과에 인계해 경복궁 내 일대는 박물관 부속으로 하며 총무과가 관장한다. 박물관은 정리를 위해 11월 중 폐쇄하고 12월 1일부터 개관한다."

이렇게 '공진회미술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명칭과 직제가 변경·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순우 작가는 저서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보고서2〉에서 "당초 공진회미술관 건물은 단순히 공진회의 전시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차 총독부박물관으로 용도를 변경해 오래도록 사용하겠다는 뜻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확언했다.

2층으로 지어진 미술관은 그간 수집했던 유물을 전시·수장하기에 그 공간이 너무 협소에 궁궐의 전각들을 전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광활한 경복궁 야외 정원을 활용한 총독부 야외전시공간은 황량하기만 했고, 이를 채우기 위한 성보 반출들이 빠르게 이뤄졌다.

갈항사지3층석탑(이하 반출연도·1916년), 보리사대경대사현기탑비(1916년)를 시작으로 **△봉림사진경대사보월등공탑비(1919년)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탑(1919년) △월광사원랑선사탑비(1922년) △정도사5층석탑(1924년) △중흥산성쌍사자석등(1931년) △염거화상탑(1934년) △흥법사진공대사탑(1934년)** 등이 꾸준히 반출돼 경복궁 야외 공간에 전시됐다.

공진회는 끝났지만 박물관은 남았다. 박물관은 방치되던 석탑과 불상들을 보존을 이유로 경복궁 야외공간으로 옮겼다. 이렇게 옮겨진 성보들은 지금도 박물관 한편을 장엄하고 있다.

성보유산의 유랑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한다.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연등시공


연등 자동 승강장치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